

## 『朝鮮圖書解題』의 목록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rn Catalog Characteristics of *Chosundoseohaeje*

도 태 현(Tae-Hyeon Doh)\*\*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朝鮮圖書解題』의 검색체계     |
| II. 『朝鮮圖書解題』 편찬의 배경과 과정  | 1. 주제 검색체계             |
| 1. 역사적 배경                | 2. 서명 검색체계             |
| 2. 간행 과정                 | 3. 인명 검색체계             |
| III. 『朝鮮圖書解題』 저록의 기술적 특성 | V. 『朝鮮圖書解題』 저록의 소재지시기능 |
|                          | VI. 맺는말                |

## 초 록

일제시대 세 차례에 걸쳐서 출간된 『朝鮮圖書解題』는 다음과 같은 현대적 목록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첫째, 각각의 저록에는 서명, 권책수, 편저자, 판본을 기입하고 저술의 시기, 저자, 동기, 구성 및 내용, 편저자의 전기 등을 포괄하여 해당 문헌을 해제하였다. 둘째, 이 목록은 사부분류체계에 의한 주제검색, 오십음순색인에 의한 서명검색, 왕호표, 편저자성별표에 의한 인명검색을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각각의 저록에는 규장각도서번호를 첨부함으로써 해당 도서의 배열위치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주제어: 조선도서해제, 고서목록, 목록의 역사

## Abstract

*Chosundoseohaeje*, a book type catalog was published three time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is catalog has several characteristics of modern catalog as follows :

First, each record of this catalog includes title, volume no., statements of responsibility, printing type, annotated bibliography containing date, author, background, structure, contents of the book, and biographies. Second, this catalog has a subject retrieval system by the four-part classification(Kyung, Sa, Ja, Jib), title retrieval system by Japanese alphabetical index, and author · editor retrieval system by their family name index or king's name index. Third, this catalog has a system indicating the location of described books by Gyujanggak book numbers.

Key Words: *Chosundoseohaeje*, old book catalog, history of catalog.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2003AA028)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 접수일 : 2003. 5. 10 · 최초심사일 : 2003. 5. 27 · 최종심사일 : 2003. 5. 28

## I. 머리말

일제초기 조선총독부는 식민지정책사업의 하나로 취조국(取調局) 및 참서관실(參事官室), 중추원(中樞院) 등의 산하기관을 동원하여 조선의 각종 제도와 관습을 조사하였다. 이 사업은 식민지 지배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우리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실시된 것으로 현지조사와 아울러 광범위한 우리 문헌의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문헌조사의 과정에서는 규장각, 구 황실 및 구 한국 정부 각 기관의 도서와 문서류를 강제 인수하는 등 광범위한 한국 문헌의 수집이 이루어졌다. 『朝鮮圖書解題』는 이들 문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조선도서를 중심으로 3차례에 걸쳐 편찬, 간행한 해제목록이다.

『朝鮮圖書解題』는 이러한 편찬 배경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해제목록에는 일제가 규장각을 비롯하여 구 한국의 각종 기관 들로부터 강제 인수한 방대한 양의 조선 도서가 수록되었으므로 당시 조선본의 소장 및 변동 상황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서지자료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朝鮮圖書解題』는 그 수록 자료의 종류 분석을 통해 당시 일제 식민지 정책의 기초를 고찰해 볼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책자형 목록의 편성체계나 저록의 구성요소가 당시까지 우리나라에서 편찬, 간행되었던 전통적 책자형 단식목록<sup>1)</sup>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현대적 목록의 특성<sup>2)</sup>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밝혀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圖書解題』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편찬되었던 『奎章總目』, 『鏤板考』, 『海東繹史』, 『藝文志』, 『帝室圖書目錄』 등은 대부분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사부분류체계에 의해 배열된 단식목록이었으나 『朝鮮圖書解題』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사부분류순 배열 외에 서명과 인명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색인기법이 도입되었으며, 또한 각각의 저록에는 해당 도서의 서가상 위치를 안내해 주는 규장각도서번호가 기입되는 등 현대적 목록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1) 단식목록(單式目錄)이란 각 건의 문헌에 대하여 하나씩 작성된 저록들을 분류순과 같은 단일체계로 배열한 목록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 용어는 백린에 의해 사용된 바 있다.(白麟 編著, 古書目錄規則(서울 :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1966), p.4.) 단식목록 대신 단일기입(單一記入), 단수기입(單數記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도 있다.

2) 김남석은 목록의 기능을 검색기능, 식별기능, 소재지시기능, 사서적기능(辭書的機能) 등 4가지로 들고 이들 기능들은 각각 다중의 표목, 기술사항, 청구기호 등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였다.(김남석, 資料目錄學, 第3增補版(大邱 : 啓明大學校出版部, 1995), pp.18-20.) 이 연구에서 '현대적 목록의 특성'이라 함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목록의 요소'를 말한다. 『朝鮮圖書解題』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편찬되었던 책자형 목록들은 대부분 서지기술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된 저록을 분류체계에 의해 단식으로 배열한 것이었으며 다중의 검색요소나, 소재지시기호를 갖고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 목록이 갖는 특성에 견주어 『朝鮮圖書解題』의 저록과 편성체계를 분석해봄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를 밝혀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문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당시 우리 문헌의 상황과 변동에 관한 연구들<sup>3)</sup>은 이미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로 『朝鮮圖書解題』가 갖고 있는 저록의 구성요소나 편성체계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현대적 카드목록이 도입되기 전에 책자형 목록에서 ‘현대적 목록의 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예를 살펴보고 그 목록사적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朝鮮圖書解題』 편찬의 배경과 과정

### 1. 역사적 배경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후 1910년 9월 30일에 칙령 제354호로 조선총독부관제를 발표하고 칙령 356호에 의해 총독부 산하 취조국(取調局)의 관제를 발표하였다.<sup>4)</sup> 그에 따르면 취조국의 주요업무는 조선의 각종 제도와 일제의 구관습을 조사하는 일, 총독이 지정하는 법령의 입안과 심의를 하는 일, 법령의 폐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 등이었다.

일제는 그 이전부터 부동산법조사회(不動產法調査會)나 법전조사국(法典調査局) 등을 통하여 조선의 민상사관습(民商事慣習)을 조사하였는데 1910년 이후 종래의 기구들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독부 직속기구로 취조국을 설치하고 조선의 구관제도조사사업(舊官制度調査事業)을 계속하도록 한 것이다.<sup>5)</sup> 취조국의 구관제도조사사업은 조선의 식민지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선 도서의 수집과 정리도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911년 6월 취조국은 궁내부 규장각이 폐지되고 일시적으로 이왕직(李王職) 관제의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규장각도서를 ‘조선도서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인수하였다.

3)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헌들을 들 수 있다.

白燁, 韓國圖書館史研究(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pp.101-136.

慎鏞廈,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研究,” 奎章閣, 5(1981), pp.59-83.

金泰雄, “日帝強占初期의 奎章閣 圖書整理 事業.” 奎章閣, 18(1995), pp.175-197.

朴允姬, 朝鮮圖書解題의 收錄圖書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2) 등

4) 朝鮮總督府官報, 第28號(1910. 9. 30)

5) 金泰雄,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 奎章閣, 16(1993), p.102.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

초기 조선총독부의 관제는 그 규모가 방대하여 1년만에 이를 축소 개편하는 과정에서 취조국은 폐국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취조국의 사업은 총독관방(總督官房) 산하의 참사관실(參事官室)로 이관되어 계속되었다. 취조국의 사업을 이어받은 참사관실은 1) 법령의 심의·입안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그 외 조선의 제도와 관습, 특명에 의한 조사업무 등을 관장하게 되었다.<sup>6)</sup>

취조국의 업무와 함께 거기서 관리하고 있던 도서를 인수한 참사관실은 구 종친부의 청사를 참사관분실로 하고 도서정리의 업무는 여기에서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규장각도서의 정리업무를 계속하는 외에도 지속적으로 조선도서와 각 군·읍지, 고문서, 금석문, 판목 등을 수집하였다.

참사관분실에서는 규장각도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引繼圖書의 目錄, 韓國本과 中國本の 分類目錄, 圖書整理簿, 圖書臺帳, 圖書類別目錄, 貴重圖書目錄, 圖書索引簿, 太白山史庫圖書目錄, 五臺山史庫圖書目錄, 日本版圖書目錄, 邑誌臺帳, 地圖臺帳, 金石文調査, 活字, 圖書總目錄 등과 같은 수다한 목록들을 만들었으며<sup>7)</sup>,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도서에 대한 해제작업을 병행하였다. 이 해제작업의 결과 세 차례에 걸쳐 편찬 간행한 것이 『朝鮮圖書解題』이다.

2. 간행 과정

참사관분실의 조선본 해제작업은 1913년에 일단 원고가 완성되었으나 체제의 통일성이나 기술의 불충분함 때문에 이를 다시 보완, 정리하여 1915년(대정4년) 3월에 처음으로 간행하였다. 1915년판 『朝鮮圖書解題』는 경·사·자·집의 사부분류체계로 배열된 본문 외에 서명의 <五十音順索引>을 첨부한 4·6배판의 책자목록이다. 목차와 색인을 제외하고 352쪽으로 된 본문은 <표 1>과 같이 총1468종의 조선도서를 수록하고 있다.

<표 1> 1915년판 『朝鮮圖書解題』의 주제별 증수<sup>8)</sup>

경(經)부	사(史)부	자(子)부	집(集)부	계
106종 7.22%	513종 34.94%	215종 14.65%	634종 43.19%	1468종 100%

『朝鮮圖書解題』의 편저자에 대해서는 책의 범례에서 조선총독부라는 기관명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실제로 해제를 담당한 사람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당시의 관

6) 朝鮮總督府官報, 第475號(1912. 3. 30)

7) 慎鏞廈, 전계논문, pp.75-76.

8)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京城]: 朝鮮總督府, 大正4[1915], pp.1-27 目次를 분석.

런서류들과 참서관분실의 직원 명단을 참고해 보면 다수의 일인들과 한국인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참서관실의 『大正二年 以降 朝鮮圖書解題ニ 關スル 書類』<sup>9)</sup>의 대정2년 1월 11일자 문서 ‘朝鮮圖書解題書供覽ノ件’에는 “朝鮮圖書解題書ノ 內草場囑託擔任ニ 係ル 分一部 脫稿…”(조선도서해제의 쿠사바(草場) 촉탁이 담당하는 부분 일부 탈고) 등의 문구가 보이며, 또한 대정 2년(1913) 12월 26일의 ‘解題事務經過報告’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朝鮮圖書解題事務ハ 左ノ 分擔ニ 依リ 從事致候

經部, 史部	鄭萬朝
子部	千葉昌胤
集部	鄭丙朝

然處經部, 子部, 集部ハ 一ト 先完結ヲ 告ケ 史部ノ ミ 僅ニ 約十分ノ 一ヲ 剩セリ 今後凡十日間ニ 是占完結ノ 見込ニ 有之候…

(조선도서해제사무는 아래와 같은 분담에 의해 완수함.)

경부, 사부	정만조
자부	千葉昌胤
집부	정병조

그러나 경부, 자부, 집부는 먼저 완결을 보고하였으며 사부만 겨우 십분의 일을 남겨놓고 있어 이후 약 십일 정도이면 이것도 완결할 수 있음 …)

이들 기록에 따르면 이전에 쿠사바(草場)<sup>10)</sup> 외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조선도서의 해제 원고가 작성된 바 있음을 추측할 수 있고, 후에 다시 이들 원고를 한국인 鄭萬朝, 鄭丙朝<sup>11)</sup>와 일본인 지바(千葉昌胤)<sup>12)</sup> 등 세 사람이 교정 및 보완하여 완성한 것임을 알 수

9) 朝鮮總督府 參事官室, 大正二年 以降 朝鮮圖書解題ニ 關スル 書類(奎章閣圖書番號 26791)

10) 1913년 7월 1일 현재 참서관분실 출근부에 草場謹三郎(囑託)이라는 이름이 있음.(金泰雄,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官制度調査事業,’” 전개논문, p.110) 이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임.

이 출근부에는 『朝鮮儒學史』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高橋亨의 이름도 보이는데 이형성(이형성 편역,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 : 일제 황국사관의 빛과 그림자(서울 : 예문서원, 2001), p.19)에 의하면 高橋亨은 정만조 등과 함께 『朝鮮圖書解題』를 완성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高橋亨도 이 해제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11) 두 사람은 형제이며 1911년 당시 취조국의 위원(정병조) 및 위원촉탁(정만조), 1913년 7월1일 현재 참서관분실의 도서해제주임(전임)으로 나타나 있으며,(金泰雄,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官制度調査事業,’” 전개논문, p.102, 110) 이들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정만조(鄭萬朝, 1858-1936) - 자는 대경(大卿) 호는 무정(茂亭). 1889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예조참의와 승지를 거쳐 1894년에는 내부참의에 이르렀다. 1895년의 팔월역변(八月逆變)과 시월무옥(十月誣獄)에 관련되어 전라도 진도에 유배. 1907년 고종 퇴위 후 관계에 복귀, 규장각 부제학, 『國朝

있다.

이후 규장각도서의 정리가 더욱 진척되자 전시(前示, 1915년판)의 도서해제가 너무 빈약했던 것을 감안하여 조선총독부는 1919년(대정8년)에 이를 증보하여 해제도서를 2,700여부(필자주 - 정확히는 2,797종)로 늘리고 951명의 편저자의 약력을 첨가(필자주 - 1915년판에도 일부 편저자의 약력은 포함되어 있었음)하여 새로운 『朝鮮圖書解題』를 발행하였다.<sup>13)</sup>

1919년판 『朝鮮圖書解題』는 저록을 경·사·자·집의 사부분류체계로 배열한 외에 서명의 <五十音順索引>과 <王號表>, <編著者姓別表> 등의 편저자명 색인을 구비하였으며, 또한 책의 말미에는 조선도서 중 체제, 인판(印版), 내용 등이 특이한 것을 골라 『太祖實錄』 외 30종의 사진판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1919년의 증보판은 4·6배판의 지형으로 본문만 708면에 달하며 저록의 주제별 종수는 <표 2>와 같다.

<표 2> 1919년판 『朝鮮圖書解題』의 주제별 종수<sup>14)</sup>

경(經)부	사(史)부	자(子)부	집(集)부	계
153종 5.47%	1268종 45.33%	378종 13.51%	998종 35.68%	2,797종 100%

이에 따르면 사(史)부의 도서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1915년 판과 비교해 보아도 사부의 자료가 집중적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판에서는 특히 조선왕조실록 전체의 해제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김태웅은 이 해제목록의 목적이 일제의 舊慣制度調査 및 『朝鮮史』의 편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sup>15)</sup>

1919년판의 편저자에 대해서도 책의 범례에서는 조선총독부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웅은 이 해제의 원고를 완료하는 작업이 어윤적(魚允迪)<sup>16)</sup>과 1915년판과 관련된

『寶鑑』 편찬위원이 됨. 1910년 한일합병 후 이왕직전사관, 총독부중추원 촉탁, 조선사편수회 위원, 경성제국대학 강사, 경학원 대제학을 지냈으며 『高宗實錄』, 『純宗實錄』 편찬 사무를 주재함.(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권(성남 : 동연구원, 1991), pp.755-756)

정병조(鄭丙朝, 1863-1945) - 자는 관경(寬卿), 호는 규원(葵園). 1882년 진사시에 합격. 1896년 명성황후시해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도 유배. 1907년 사면. 그 뒤 중추원의 촉탁으로 조선사의 편찬에 참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권, 상계서, p.773)

12) 千葉昌胤은 당시 이 해제사무의 주임으로 표시되어 있다. (朝鮮總督府 參事官室, 앞의 서류)

13) 田鳳德,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의 由來,”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 附補遺篇(서울 : 亞細亞文化社, 1984(영인)), p.38.

14)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京城] : 朝鮮總督府, 大正8[1919]), pp.1-51 目次를 분석.

15) 金泰雄, “日帝 強占 初期의 奎章閣圖書 整理事業,” 전개논문, p.192.

16) 어윤적(魚允迪) - 1868-1935. 자는 치덕(禔德) 호는 혜제(惠齊).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서 수학. 1907년 학부편집국장이되어 국문연구소 개설의 주동적 역할을 함. 한일합병 이후 중추원참의에 임명되어 조선사편찬위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강사 역임. 일제의 문화정치 이후 조직된 단체 중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의 회장을 맡아 정만조 등과 함께 활동.(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권(성남 : 한국정신문

있던 정병조, 정만조 등 조선인 촉탁이 담당하였다<sup>17)</sup>고 하였다.

이후에도 이 목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31년 조선총독부는 조선통신사(朝鮮通信社)에 『朝鮮圖書解題』의 중간판(重刊版) 발행을 허가하였다. 이 중간판은 규장각도서번호를 제거하고 본문 578쪽의 국판으로 1932년에 발행되었다. 지형을 바꾸어 전체 쪽수가 변한 외에 수록문헌의 종류나 해제의 내용, 편찬체제는 1919년 판과 거의 동일하다.

백린은 그 후에도 1945년 이것을 재생 경지에 인쇄한 것이 나왔다<sup>18)</sup>고 하였으나 실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 Ⅲ. 『朝鮮圖書解題』 저록의 기술적 특성

이 목록의 편찬에서 특히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사부에서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갖춘 한 저록을 들어 『朝鮮圖書解題』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5년판 저록의 예>

○ 三國史記 五〇卷 高麗仁宗命撰 板本

本書は高麗仁宗の時集賢殿大提學金富軾, 金忠等命を奉して新羅, 高句麗, 百濟三國の史實を輯録したるものにして編次の内容は第一卷より第十二卷までは新羅の事蹟を記し第十三卷より第二十二卷までは高句麗 … 朝鮮太祖三年金居斗此の書の泯絶を憂ひ其の原本に就き再刊したるもの即ち是なり

金富軾は雷川と號し慶州の人なり高麗文宗乙卯に生れ文章を以て世に名あり肅宗の時文科に登り官翰林學士戸部尙書を経て… 毅宗辛未に歿す<sup>19)</sup>

(본서는 고려 인종 때 집현전 대제학 김부식, 김충 등이 봉명찬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역사를 집록한 것으로 편차의 내용은 제십이권부터 제십이권까지는 신라의 사적을 기록하고, 제십삼권부터 제이십이권까지는 고구려 … 조선 태조 삼년 김거두가 이 책의 없어짐을 염려하여 그 원본으로 재간한 것이 이것이다.

김부식의 호는 뇌천이며, 경주인으로 고려 문종 을묘년에 나서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높았으며 숙종때 문과에 등과하여 한림학사, 호부상서를 지냈다. … 의종 신미년에 죽었다.)

화연구원, 1991), p.9)

17) 金泰雄, “日帝 强占 初期의 奎章閣圖書 整理事業,” 전계논문, p.192.

18) 白麟, 韓國圖書館史研究, 전계서, p.132.

19)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1915), 전계서, p.27.

본래는 세로쓰기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편집의 편의를 위하여 가로쓰기로 고쳤으며 이후 『朝鮮圖書解題』의 내용을 인용한 것은 모두 이와 같음.

위의 예에서 보듯이 1915년판의 기술형식은 서명, 권수, 저자, 판본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입하고 그 다음에 행을 달리하여 문헌의 내용을 해제하였다. 해제의 내용은 대개 저술의 시기, 저자, 동기 그리고 문헌의 세부적 구성 및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그 외에 책의 간행과 관련된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편저자의 이름과 관련된 사실(휘, 호 등), 출생과 관련된 사실(지역, 시기 등), 등과(登科) 및 벼슬과 관련된 사실, 업적 및 경력과 관련된 사실, 사망 등을 기록한 소전(小傳)을 첨부하였다.

이러한 기술내용은 이후 1919년판과 1932년판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를 각 판의 동일한 저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9년판의 저록의 예>

○ 三國史記 五〇卷一〇冊 高麗仁宗命撰 印本

圖書番號 三一九六, 三六一四, 四二四五, 四三五四, 七五五五

三國鼎立の際各國史を置き時事を記せしも屢兵火に罹り典籍の存するもの極めて少し適  
ま古記文書の存するあるも蕪拙荒怪にして多くは信するに足らず故に高麗仁宗の時金富弼  
等に命し三國史記を撰せしむ富弼等古記, 遺籍或は支那の諸史を採り司馬遷の史記に倣ひ之  
を編纂し命けて三國史記と云… 編次は本紀, 年表, 志類及列傳とし第一卷より第十二卷まで  
は新羅本紀第十三卷より第二十二卷までは高(句)麗本紀 …

高麗仁宗諱は構, 宋高宗の諱を避け楮と改む睿宗の子太祖六世の孫にして睿宗六年己丑に  
生る十七年壬寅即位二十四年丙寅位を太子(毅宗)に禪り同年薨す壽三十八恭孝と論し長陵に  
葬る

金富弼は雷川と號し慶州の人なり高麗文宗乙卯に生れ文章を以て世に名あり肅宗の時文  
科に登り官翰林學士戸部尚書を経て…毅宗辛未に歿す諡して文烈と云ふ才文武を兼ね位將  
相を極めたり<sup>20)</sup>

이 저록을 1915년판과 비교해보면 우선 밑줄친 부분과 같이 자료의 수량을 기술할 때 권수 외에 책수를 추가하였으며, '판본'(板本)이라는 용어는 '인본'(印本)으로 고쳤다. 그리고 규장각도서번호를 첨부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제의 체제는 역시 저술의 시기, 저자, 동기 그리고 문헌의 세부적 구성 및 내용 등을 포괄하고 있어 1915년판에 비하여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밑줄친 부분과 같이 그 내용이 좀 더 상세해진 경우가 있으며, 특히 저자의 소전을 추가하거나(이 예에서는 밑줄친 부분과 같이 고려 인종의 소전을 추가하였음) 1915년판부터 있었던 저자의 소전도 필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증보(김부식의 소전 중 밑줄 친 부분)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전

20)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1919), pp.43-44.



체적으로 1915년판에 비하여 1919년판이 기술의 내용 면에서 증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32년판의 저록 예>

○ 三國史記 五〇卷一〇冊 高麗仁宗命撰 印本

三國鼎立の際各國史を置き時事を記せしも屢兵火に罹り典籍の存するもの極めて少し適  
ま古記文書の存するあるも燕拙荒怪にして …

이하 1919년판과 동일<sup>21)</sup>

932년판은 1919년판과 비교해볼 때 앞서 역사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장각도 서번호를 제거한 외에는 거의 바뀐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朝鮮圖書解題』는 그 기술의 체제나 양식이 이전의 우리나라 전통적 해제목록들에 비하여 다소 정형화된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으로 편저자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한 전기적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이를 통해서도 저술의 수준과 내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V. 『朝鮮圖書解題』의 검색체계

『朝鮮圖書解題』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奎章總目』, 『鏤板考』, 『海東釋史』, 『藝文志』, 『帝室圖書目錄』 등의 전통적 단식목록들은 대부분 경·사·자·집의 사부분류 체계로 배열하였으며 이 분류체계, 즉 주제의 배열체계는 유일한 검색수단이기도 하였다. 이에 비하여 『朝鮮圖書解題』는 분류체계에 의한 주제검색 외에 몇 가지 검색체계를 갖추고 있다. 『朝鮮圖書解題』의 이와 같은 검색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주제 검색체계

『朝鮮圖書解題』역시 전통적 단식목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사·자·집의 사부분류 체계로 저록을 배열함으로써 이 분류법의 주제체계가 검색의 수단이 되도록 하고 있다.

『朝鮮圖書解題』의 상세한 분류체계는 <표 3>과 같다. 모든 판에서 주제를 경·사·자·집의 사부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유별로 구분한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하였으며 그

21)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京城]: 朝鮮通信社, 昭和7[1932]), pp.35-36.

항목들도 유사하다. 각 유 아래에서의 배열규칙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배열된 기록을 분석해보면 대개 편저자의 출생이나 저술의 연도를 기준으로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朝鮮圖書解題』 연도별 판들의 분류체계

경(經)부		사(史)부		자(子)부		집(集)부	
1915년판	1919년판 1932년판	1915년판	1919년판 1932년판	1915년판	1919년판 1932년판	1915년판	1919년판 1932년판
易類	易類	正史類	正史類	儒家類	儒家類	別集類	別集類
書類	書類	編年類	編年類	道家類	道家類	總集類	總集類
詩類	詩類	記錄類	紀事類	釋家類	釋家類		題評類
禮類	禮類	紀事類	別史類	兵家類	兵家類		詞曲類
春秋類	春秋類	別史類	野乘類	農家類	農家類		功令類
大學類	大學類	野乘類	政法類	醫家類	醫家類		
中庸類	中庸類	政法類	記錄類	天文類	天文類		
論語類	論語類	地理類	地理類	譯學類	譯學類		
孟子類	孟子類	金石類	金石類	類書類	類書類		
別經類	別經類	傳記類	傳記類	叢書類	隨錄類		
總經類	總經類	系譜類	系譜類	藝術類	藝術類		
字彙類	字書類	雜錄類	年表類	小說類	小說類		
		年表類	目錄類	雜書類			
		目錄類					

1919년판과 1932년판의 분류체계는 동일하며 이 판들과 1915년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1915년판에서 자전(字典)들을 분류하는 항목인 경부의 자휘류(字彙類)는 1919년판에서 그 명칭이 자서류(字書類)로 바뀌었는데 이는 용어상의 변화일 뿐 내용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1915년판 사(史)부의 기록류(記錄類) 배열 위치가 1919년판에서는 정법류(政法類) 다음으로 옮겨졌다.

셋째, 1919년 판에서는 사(史)부의 잡록류(雜錄類)를 없애고 1915년판에서 여기에 수록했던 문헌들의 일부는 자부의 유사류(類書類, 『故事撮要』와 같은 것) 혹은 수록류(隨錄類, 『五龍齊錄』, 『龜菴擬政內外案』, 『古鑑』 등과 같은 것) 등으로 옮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타의 성격을 띤 잡록류의 도서에 대하여 구체적 주제를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1919년판에서는 자(子)부의 총서류(叢書類)를 없애고 해당 도서들은 특정 주제로 옮겼다.(예를 들면 『破閑集』과 『補閑集』은 자부의 題評類로 옮김) 이 역시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배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1919년판의 자부에는 방술류(方術類), 수록류(隨錄類), 집부에는 제평류(題評類), 사곡류(詞曲類), 공령류(功令類) 등을 신설하였다.

방술류에는 음양오행과 천문역법에 관한 도서를 분류하였다.

수록류에는 수필, 만필, 여행기 등을 분류하였다.  
 제평류에는 비평서에 해당하는 것을 분류하였다.  
 사곡류에는 1915년판에서 총집류에 함께 분류되어 있던 음악관계자료(예를 들면 『龍飛御天歌』, 『國朝樂章』, 『觀刈樂章』 등)를 독립해서 분류하였다.  
 공령류에는 과거시험과 관련된 문헌들을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1915년판에 비하여 1919년판에서 유의 항목이 늘어난 것은 해제문헌이 늘어나면서 주제의 세분이 필요하게 된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으로 <표 3>에서 볼 수 있는 1915년판 『朝鮮圖書解題』의 분류체계를 <표 4>의 조선총독부참사관실의 부문별 분류표준과 비교해보면 경부의 경의류(經義類), 자부의 산수류(算數類), 집부의 수사류(修辭類)를 제외하고는 항목과 순서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사관실의 조선도서정리과정에서 사용한 분류법을 『朝鮮圖書解題』의 편찬에도 그대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 참사관실 부문별 표준<sup>22)</sup>

部 別	類 別
經 部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大學類, 中庸類, 論語類, 孟子類, 別徑類, 總經類, 經義類, 字彙類
史 部	正史類, 編年類, 記錄類, 紀事類, 別史類, 野乘類, 正法類, 地理類, 金石類, 傳記類, 系譜類, 雜錄類, 年表類, 目錄類
子 部	儒家類, 道家類, 釋家類, 兵家類, 農家類, 醫家類, 天文類, 算數類, 譯學類, 類書類, 叢書類, 藝術類, 小說類, 雜書類
集 部	別集類, 總集類, 修辭類

이보다 먼저 일제는 취조국을 통하여 조선도서를 강제로 인수하고 이를 정리하기 위한 분류법으로 기존의 『奎章總目』 분류법 대신 <표 5>와 같은 취조국 도서 세부분류표를 독자적으로 만든 바 있다. 그러나 위의 참사관실 부문별 표준은 이와 같은 취조국 도서 세부분류표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표 6> 궁내부 예규의 제실도서분류법에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제시대 조선도서의 정리작업이 진척되면서 사고전서분류법에 기초한 규장각도서 본래의 분류법으로 되돌아 온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2)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一), 이승일, “조선총독부의 ‘朝鮮圖書 및 古文書’ 인식과 기록물 관리,” p.6(<http://203.24/185.12/stork.html>[인용 2003. 4. 20])에서 재인용.

〈표 5〉 1911년 10월 26일 취조국의 도서 세부분류<sup>23)</sup>

部別	類別
經部	四書五經類, 字彙類
史部	系譜記錄類, 歷史類, 政治法律類, 傳記雜記類, 地理類, 年表目錄類
子部	儒道佛類, 兵農醫類, 天文算類, 類書類, 叢書類, 雜書類, 藝術類
集部	別集類, 總集類, 修辭類

〈표 6〉 『宮內府 例規』의 제실도서분류법<sup>24)</sup>

部別	類別
經部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五經總義類, 四書類, 樂類, 小學類
史部	正史類, 編年類, 紀事本末類, 別史類, 雜史類, 詔令奏議類, 傳記類, 史鈔類, 載記類, 時令類, 地理類, 職官類, 政書類, 目錄類, 史評類
子部	儒家類, 兵家類, 法家類, 農家類, 醫家類, 天文算數類, 術數類, 藝術類, 譜錄類, 雜家類, 類書類, 小說家類, 釋家類, 道家類
集部	楚詞類, 別集類, 總集類, 時文評類, 詞曲類

여기에 대해 이승일은 당시 참서관실에서 조선도서와 중국도서의 분류방식들이 착오를 일으키기 쉽고 검색에 불편하기는 하나 그 분류법들이 일정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고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근대 학술에 적합한 분류로 고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취조국의 표준안을 조선 재래의 사고전서분류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수정하였다<sup>25)</sup>고 하였다.

## 2. 서명 검색체계

『朝鮮圖書解題』는 1915년판부터 모든 판에 서명의 〈五十音順索引〉을 구비하고 오십음순으로 나열된 서명으로부터 그 저록이 수록된 쪽수를 지시함으로써 서명의 자모순으로 저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15년판과 1919년판(1932년판은 해당 저록의 수록 쪽수만 다를 뿐 그 배열규칙과 순서는 1919년판과 같다)의 색인항목 배열규칙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색인의 배열규칙에 대하여는 어디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다. 다만 실제로 색인항목이 배열된 예를 통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圖書關係書類綴(규장각도서번호26764), 이승일, 상계논문, p.3에서 재인용

24) 宮內府例規, 이승일, 상계논문, p.7에서 재인용.

25) 이승일, 상계논문, p.6.

1915년판 서명 〈五十音順索引〉의 일부<sup>26)</sup>

(ケ) ...		經世遺表	九二
經筵講義	四一	經世指掌	一四五
經筵故事比例	四〇	經世問答續錄	七五
經筵日錄	三九	...	
經國大典	七〇	奎華名選	三四九
經國大典註解	七二	奎章閣志	三四九
經國六典	六九	奎章閣書目	一四六
經濟野言	九一	奎章閣上樑文	一九一
經山集	三三一	奎章閣日記	三九
經史集說	一六〇	奎章全韻	二四
經書類抄	二二	奎章總目	一四八
經書辨疑	二二	...	

1919년판 서명 〈五十音順索引〉의 일부<sup>27)</sup>

(ケ) ...		經書類抄	四四四
經書辨疑	三八	經山集	六四七
經世遺表	九一	奎章全韻	四二
經國大典	九二	奎章閣日記	六〇
經國大典註解	九五	奎章閣志	一〇八
經濟野言	一三八	奎章總目	三八四
經筵講義	一四〇	奎章閣書目	三八四
經筵故事比例	一四五	奎章閣曝書書目	三八五
經筵故事書進錄	一四五	奎章字藪	三八六
經筵日錄	一五六	奎章閣上樑文	四五九
經世指掌	三八一	奎華名選	七〇三
經史集說	四四三	...	

이 예에 따르면 1915년판의 색인은 서명 전체의 일본어 오십음순으로 배열하였으나 1919년 판은 서명의 첫 글자만 오십음순으로 배열하고 첫 글자가 같은 것은 그 저록이 수록된 쪽수가 앞서는 것부터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한자의 완전한 일본어 표기와 배열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배열과 검색의 편의를 위해 채택한 방안이 아닌가 추측된다.

종래의 단식목록에서는 경·사·자·집의 분류체계가 유일한 검색도구였는데 비하여 『朝鮮圖書解題』의 이와 같은 서명의 오십음순색인 방식은 서명을 저록의 접근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말하자면 주제와 더불어 저록에 대한 다중접근을 가능하게 한

26)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1915), 전게서, pp.6-7.

27)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1919), 전게서, p.14.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인명 검색체계

『朝鮮圖書解題』는 저록의 말미에 해당도서의 편저자 및 관련 왕의 소전을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저록에 이를 다 첨부한 것은 아니고 동일한 저자의 작품이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한 저록에만 이를 첨부하고 나머지 저록에서는 생략하였다.

첫 번째 판인 1915년판에서는 이러한 편저자의 소전을 검색하는 방식을 따로 두지 않았다. 다만 앞서 어느 한 저록에 해당 편저자의 소전을 첨부하고 동일 저자의 다른 저록으로부터는 소전이 첨부된 저록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만 하고 있다.

1915년판 저록의 예<sup>28)</sup>

○ 訓蒙字會 三卷 崔世珍著 板本

本書は崔世珍が童稚初學の爲に類を以て字を聚め四言の韻文

...

崔世珍の小傳は經部韻會玉篇に出つ

즉 이 저록에는 저자 최세진에 대한 소전을 첨부하지 않았으나 이를 보려면 역시 최세진의 저술인 경부의 『韻會玉篇』을 보라는 참조이다.

1919년판과 1932년판 역시 동일인의 여러 저술 중 한 곳에만 편저자 및 관련 왕의 소전을 첨부하였으나 1915년판과는 달리 두 판 모두 소전이 없는 저록으로부터 소전이 첨부된 저록으로의 안내를 없애고 그 대신 편저자의 소전이 있는 쪽수를 알 수 있게 한 <王號表>와 <編著者姓別表> 등의 색인을 구비하고 있다.

역대 왕이나 편저자의 소전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王號表>와 <編著者姓別表>를 1919년판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王號表><sup>29)</sup>

高麗王號		世宗	四九
仁宗	四四	文宗	五〇
高宗	三二六	...	
朝鮮王號		朝鮮追尊王后表	
太祖	四九	昭惠后	二九六
定宗	四九	莊祖	四五四
太宗	四九	獻敬后	七二

28)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1915), 전게서, p.26.

29)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1919), 전게서, p.1.

이 표에 의하면 고려 및 조선 왕조의 각 왕에 대한 소전이 있는 쪽수를 알 수 있다. 즉 고려 인종의 소전은 본문 44쪽에, 그리고 조선 태종의 소전은 본문의 49쪽에 있는 어느 한 저록에 첨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編著者姓別表>는 다음과 같은 이중의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編著者姓別表>의 일부<sup>30)</sup>

二劃	丁	二一	(색인의 14쪽)	
三劃	天	二三	申大羽	六三二
四劃	尹	一一	申緯	六四一
	元	二〇	權近	一三
	孔	二二	權擘	五六
	卞	二二	權和	六一
...			權以生	八六
...			...	
二十二劃	權	一四	權致福	六七五
...			趙翼	八
			趙時範	二二

이 색인에서는 일차적으로 앞쪽에 편저자의 성(姓)을 획수 순으로 배열하고 이 <編著者姓別表> 내에서 해당 성씨를 가진 편저자명(색인어)들이 수록된 쪽수를 표시하였으며, 그 다음에서는 해당 성씨별로 편저자명을 나열하고 각각의 편저자명마다 소전이 있는 쪽수를 표시하였다.

예에 따르면 성의 획수별 색인에서 권씨 성을 가진 편저자들은 이 <編著者姓別表> 14쪽에 열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編著者姓別表>의 14쪽에는 권근으로부터 권치복에 이르기까지 권씨 성을 가진 모든 편저자명들과 각 편저자의 소전이 있는 쪽수를 표시하였다. 같은 성씨를 가진 여러 명의 편저자는 그 쪽수 표시가 일련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각각의 소전이 본문에 수록된 순서대로 배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朝鮮圖書解題』 1915년판의 편저자명 참조나 1919년판과 1932년판의 <王號表> 및 <編著者姓別表>는 모두 이 목록의 저록에 포함된 편저자의 소전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19년판과 1932년판의 <王號表> 및 <編著者姓別表>는 편저자의 소전들이 그들이 저술한 저록의 말미에 붙어 있고, 뿐만 아니라 소전의 수가 전체 저록의 절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편저자명으로 해당 저록을 검색할 수 있는 장치도 되는 셈이다.

30) 상계서, p.1, 14.

『朝鮮圖書解題』의 이러한 인명 검색시스템이 검색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정밀하지 못한 것은 흠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명의 검색시스템은 그 이전의 전통적 목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때에 이르러 인명으로도 저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이나 인명을 검색할 수 있는 색인기법을 고안했다는 점에서는 목록사적인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 V. 『朝鮮圖書解題』 저록의 소재지시기능

『朝鮮圖書解題』 1919년판에는 각각의 저록마다 규장각도서 정리과정에서 서고 및 서가 등 책을 보관하고 있는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부여한 규장각도서번호가 기입되어 있다.

『朝鮮圖書解題』에 기입된 규장각도서번호는 앞서 III장에서도 본 바 있는 다음 예의 밑줄친 부분과 같이 하나의 저록에 기입된 도서번호들이 연속성 없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다.

○ 三國史記 五〇卷一〇冊 高麗仁宗命撰 印本

圖書番號 三一九六, 三六一四, 四二四五, 四三五四, 七五五五

三國鼎立の際各國史を置き時事を記せしも屢兵火に罹り典籍の存するもの極めて少し  
適ま古

이와 같이 동일한 저록의 도서번호들이 흩어져 나타나고 있는 것은 비단 이 저록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대하여 김태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도서번호가 서가별로 부여되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고전서의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분류된 도서배열방식을 따랐다. 『圖書臺帳』은 이에 입각하여 작성된 목록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극히 일부 서고에 국한된 게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1916년에 작성된 『朝鮮圖書臺帳』과 비교할 때, 전자의 경우가 총 8,690부에 비해 후자의 경우는 15,025부에 이른 데서 쉽게 짐작된다. 즉 일부만 사고전서 분류방식을 따랐고 나머지는 미정리 상태로 방치된 셈이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우선 정리되어 서가별로 배열된 일부 도서에 서가 위주로 번호를 미리 부여함으로써 여타 미정리 도서와의 관련성이 애초부터 배제되었다. 가령 동일 제목의 도서라 하더라도 정리 순서에 따라 서고와 서가의 배열 위치가 달랐을 경우 도서번호는 이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져 부여



된 셈이 된다.<sup>31)</sup>

당시 규장각도서를 관리하던 기관의 변경이 잦았고, 일련의 도서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었을 때마다 배열한 서가별로 미리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전체 규장각도서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서번호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제의 규장각도서 정리과정에서 본래의 규장각도서 정리 체계가 많이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규장각도서의 정리과정에서 도서번호가 처음부터 서가별로 부여되었으며, 또한 정리과정에서 몇 차례 번호 부여방식의 변경은 있었으나 결국 규장각도서의 서가배열은 이 도서번호가 기준이 되어 이루어졌으므로 『朝鮮圖書解題』의 각 저록에 기입된 이 규장각도서번호는 도서의 소재 위치를 알려주는 요소, 즉 소재지시 기능을 갖고 있는 셈이다. 백린은 이 규장각도서번호가 『朝鮮圖書解題』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규장각도서의 검색출납이 대체로 이 해제목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였다.<sup>32)</sup>

## VI. 맺는말

『朝鮮圖書解題』는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정책 기초자료조사라는 편찬 배경의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수록자료의 내용이나 저록의 편찬체계 때문에 서지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朝鮮圖書解題』의 간행경위, 그리고 기술 및 검색체계, 규장각도서번호와 같은 목록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수록 도서의 수, 기술의 형식, 편성체계 등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면서 세 차례에 걸쳐 간행된 『朝鮮圖書解題』는 그 이전의 책자형 단식목록들에 비하여 몇 가지 현대적 목록의 특성을 갖고 있다. 세 판 중 가장 완전한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1919년판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형식은 서명, 권책수, 저자에 관한 사항, 판본을 간략하게 기입하고 그 다음에 행을 달리하여 저술의 시기, 저자, 동기, 문헌의 세부적 구성 및 내용, 책의 간행에 관한 사실들을 포함하여 해제하였다. 그리고 저록의 말미에는 편저자의 이름과 관련된 사실(휘, 호 등), 출생과 관련된 사실(지역, 시기 등), 등과 및 벼슬과 관련된 사실, 업적 및 경력과 관련된 사실, 사망 등을 기록한 소전을 첨부하였다.

둘째, 『朝鮮圖書解題』는 다음과 같이 다중표목에 의해 저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 金泰雄, “日帝 强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 전계논문, p.184.

32) 白麟, 韓國圖書館史研究, 전계서, p.132.

1) 사부분류체계로 저록을 배열함으로써 주제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朝鮮圖書解題』는 대부분의 전통적 단식목록들과 마찬가지로 사부분류체계로 분류하였으며 그 이하의 세구분은 사고전서의 예를 따른 『奎章總目』의 분류법에 가깝게 분류하였다. 전통적 단식목록에서 이와 같은 분류체계, 즉 주제의 체계는 목록 검색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2) 『朝鮮圖書解題』는 분류체계 외에 서명, 왕호 및 편저자명 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색인을 구비함으로써 저록에 대한 다중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朝鮮圖書解題』에서 서명을 자모순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서명의 <五十音順索引>이나 편저자명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王號表> 및 <編著者姓別表> 등은 오늘날 목록에서 서명과 저자명으로 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견될 수 있다.

셋째, 『朝鮮圖書解題』의 1919년판에는 각 저록마다 규장각도서번호를 기입함으로써 해당도서의 소재 위치를 표시해 주고 있다. 도서가 배열된 위치를 표시하는 이 규장각도서번호는 오늘날 목록의 청구기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적 목록체계에서와 같은 식별기능, 검색기능, 소재지시기능을 갖춘 『朝鮮圖書解題』는 우리나라에서 카드형태의 목록이 사용되기 전에 현대적 목록의 체계를 고무 갖춘 선구적 목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